

2011 한국 컴퓨터그래픽스 대상

김 창 헌
(고려대학교 교수)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는 2011년 한국컴퓨터그래픽스대상 수상자로 고려대학교 김창헌 교수를 선정한다. 김창헌 교수는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도전적인 성과들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봉사를 바탕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한국 컴퓨터 그래픽스 학계의 도약을 이끌었다.

김창헌 교수는 KIST/SERI에 연구원으로 15년간 재직하며 STEP2000 등 그래픽스 기반기술 개발에 매진하였고, 1995년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그래픽스의 다양한 분야에 학문적으로 많은 공헌을 해왔다. 특히 표면 장력을 고려한 공기 방울 움직임의 시뮬레이션을 시작으로 다상 유체 시뮬레이션, 입자와 격자 연동 유체 시뮬레이션 등의 성과를 SIGGRAPH, TVCG 등 세계적으로 우수한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인정받아 올해 국가 지정 연구실(NRL)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김창헌 교수는 뛰어난 학술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한국 컴퓨터 그래픽스 학회의 성장과 부흥에 큰 공헌을 하였다. 1995년 총무이사, 2002~2007년 부회장, 2008~2010년 회장으로 학회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특히 회장 재임기간 중에는 그래픽스 학술대회를 질과 양면에서 한 단계 높은 대회로 격상시켰으며 한국컴퓨터그래픽스 학회지를 학진등재후보지에 등재하였고, Intel, NHN, NVIDIA 등의 산업체와 학연산 협력 구도를 주도하며 학회 발전을 이끌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과 이스라엘과의 학문교류의 장을 이끌었고, Pacific Graphics 2009, Computer Graphics International 2011 등의 국제학술대회 의장을 역임하여 한국 컴퓨터 그래픽스 학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김창헌 교수의 학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 그리고 리더십은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새로운 연구 분야에 대한 도전 정신과 열정은 후배 연구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이러한 그의 공로를 높이 인정하여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는 세 번째 대상을 수여한다.

이전 수상자: 2008년 신성용 (KAIST 교수), 2009년 김명수 (서울대 교수)